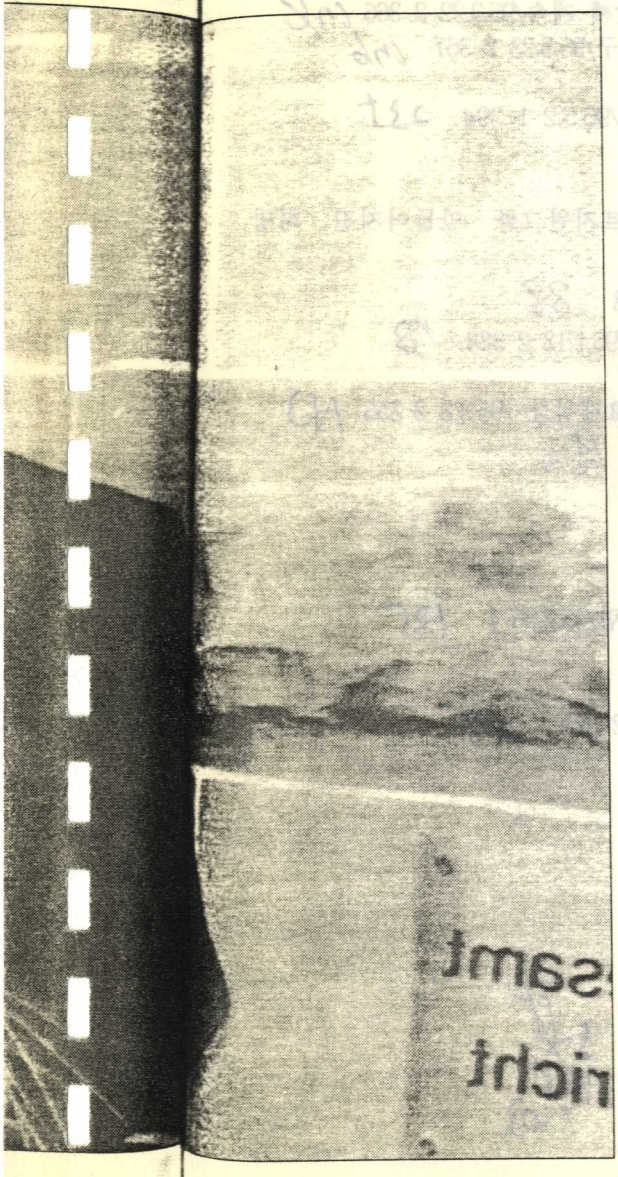
인권 자료실
등록일
11

소크라테스에서 마돈나까지

『게이 100선— 과거와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이와 레즈비언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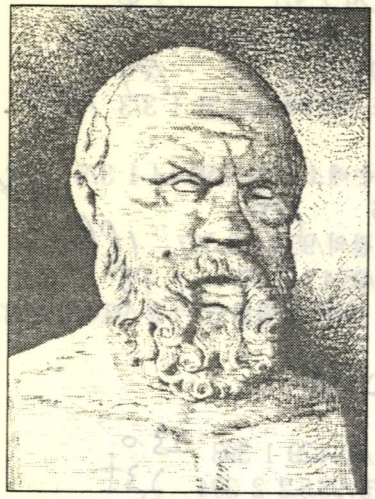
숨겨진 동성애

폴 러셀(Paul Russell)
미국인이며 소설 *The Salt Point, Boys of Life, and Sea of Tranquillity*의 작가이다.
현재 바사르 대학 영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강좌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남자들의 동성애가 고매한 정신의 교류라고
공공연하게 추앙받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또 미국에서 동성애가 한때 정신질환으로 낙인 찍혀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수십년간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왔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역사 속에서, 그리고 동양문화권에서 동성애자들은 억압되고 묵살되고
지워져왔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폴 러셀은 역사의 유명인이
동성애자라고,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건 그들이 바로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 속의 유명인사들이 동성애자였음을
밝혀내 동성애자들의 실추된 지위를 세우려 한다.
그가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기여한 순위로 매긴
유명인사 100인 중에서 널리 알려진 명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폴 러셀의 독특한 시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권위에 싸인
명사들의 사생활을 엿보게 된다. 〈편집자 주〉

소크라테스(기원전 469~399) "플라토닉 러브는 동성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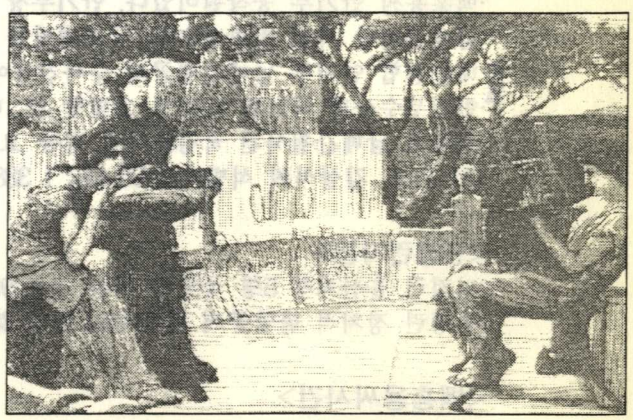


'게이100선'에서 랭킹 1위에 오른 이는 소크라테스. 전 세계인이 그토록 존경하는 철학의 아버지가 동성애를 즐겼다? 이 사실은 확실히 적지 않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남는다. 허나 저자는 "그는 2천4백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동성애자들 가슴에 파고들어 그들이 생활을 바꾸게 할 정도로 스스로를 새로이 발견하게 만든 교사였다. 그는 실제 아테네의 나이어린 소년들의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호소력있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는 논리를 펼친 교사였다. 그는 아테네의 동성애적 관습의 화신이었다"고 파헤친다.

한권의 저작도 남기지 않은 이 철학자의 동성애에 대한 사상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쓴 『향연』과 『파이드루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라고 일컬어지는 승화된 사랑이 그것이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소년에 대해 나이 든 남자가 느끼는 에로틱한 감정이 어떻게 움트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그린다. 그것은 물질적 타산에 연연해하지 않고 고결하게 행동하는 신성한 광기의 일종으로 이러한 열정은 육체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다. 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상대하는 어린 남자의 육체가 아니라 그가 체현하고 있는 철학적 아름다움에 찬탄한다. 이 열정은 어떤 특수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념하게 보편적인 것을 마주 대하게 함으로써 철학적 사유로 이어진다. 이러한 고리를 통해 사랑은 시와 철학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광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파이드루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에 빠진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신과 닮기를 원한다. 그럼으로써 그가 사상을 얻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신의 길에 발을 내딛게 되고 스스로 그 신의 형상을 본뜬 뒤 소년에게 그 사리분별과 기강을 주게 된다. 그의 교제에는 어떠한 시샘이나 악의도 없고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닮게 하고 그들이 경배하는 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로 쏠린다. 그래서 실로 그 신비한 예식의 한가운데 있는 연인들의 몸짓은 그렇듯 행복에 넘치고 빛난다."

상대하는 소년에게 존재하는 잠재성을 꽃피워주는 지극히 정신적으로 고양된 이 관계는 이후 남성동성애의 전형으로서 자주 발견된다. 철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그의 언설의 바탕이 노골적인 동성애적 사랑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몹시 묵살하고 싶어했을지라도 게이 독자들은 언제나 이들 교과서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찾아왔다. 동성애권리운동의 선구자 허쉬펠트가 『사포와 소크라테스』라는 글로써 동성애의 정수를 밝히려고 한 점도 그가 후세에 동성애자들의 상상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됨은 그와 더불어 시작했다"는 저자의 선언은 그가 소크라테스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게이로 꼽는 까닭을 엿보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정체성과 자기인식을 찾는 동성애자들에게 풍성한 철학적 지주를 제공한 것이다.

사포(기원전 6세기초) "레즈비언의 역사는 그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랭킹 2위 사포. 그녀는 열정적이지만 짧고 토속적인 말투와 운

율로 짜여진 특유의 서정시를 남겨 '사포식'이라고 불리는 시의 형식을 창조해낸 위대한 서정시인으로 교과서에 오르는 인물이다.

동성애를 하는 여성을 일컫는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은 사포의 고향 '레스보스'섬에서 유래한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섬의 이름은 역사의 동틀녘 동성애가 일반화된 한 시대의 성풍습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그곳 귀족사회의 사교모임을 이끌며 풍류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시는 그리 많이 전해지고 있진 않지만 그 몇수의 시편은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란을 새겨놓고 있다. 그녀가 사랑했던 몇몇 여자들로 아띠스, 아낙토리아, 정글라, 음냐사디카 등의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뿐이지만, 그녀의 작품에 다가 갈 수 있었던 고대의 저술가들은 그녀를 우리가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그리고 있다. 또한 그녀와 소녀들의 관계를 소크라테스와 소년들의 남색적 관계와 같은 것으로 풀이한다.

9권의 서정시편과 한권의 만가 등 모두 10권으로 묶여져 나온 그녀의 책 사본들은 중세까지는 남아 있었으나 그 뒤로는 분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미 기독교적 역사가 공고해진 9세기경엔 사포의 작품에 대한 흔적은 다른 저자들이 인용하는 데서만 발견될 뿐이다. 그렇더라도 사포의 이름, 그녀가 표상하고자 한 바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동성애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저주였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물결을 살다간 마리 앙트와네트 왕비는 "사포를 추종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괴물집단의 수괴"라는 죄명으로 단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듯 역사의 지평에서 밀리던 그녀는 아직 죽지 않고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이라는 이상으로 살아남아 있다. 19세기 사포의 제자가 쓴 시를 베껴 쓴 삐에르 루위즈는 에로틱한 레즈비언 연애시 모음 『빌리티스의 노래들』을 펴내면서 "고대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자그마한 책을 정중하게 미래사회의 젊은 여자들에게 바친다"고 적고 있다. 이 작품이 문학적 모조품이라고 밝혀진 뒤조차도 그 책은 이제 막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각성하기 시작하던 한 세대의 여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1902년 나탈리 바니(이 책 43번째)가 쓴 『그리스의 다섯 소품집』은 사포를 찬미하는 시를 읊조렸고, 그녀와 그녀의 연인이었던 프네 비비안은 사포를 본받은 시의 학교를 건립하려는 꿈을 품고 레스보스섬을 참배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조직에 붙일 이름을 궁리하던 50년대 미국의 레즈비언들은 자신들이 짐짓 사포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자 '빌리티스의 딸들'이라고 했다. 1972년 S.애보트와 B.러브가 써서 레즈비언 해방에 있어 개척자적이고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책의 이름은 『사포는 정당한 여성이었다』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 밖에도 사포로부터 전해내려온 서정적이고도 에로틱한 전통을 더듬어내는 발길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레즈비언 존재의 역사는 그녀와 더불어 시작한다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1854-1900)
"동성애로 인한 구속, 재판, 감옥행"

『도리안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랭킹 3위. 결혼을 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동성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실천한 드문 인물.

둘째아들을 낳던 해 17살 먹은 옥스포드 대학생 R.로스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 그는 한편으로는 아내와 명망있는 동료들과의 생활을,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과의 동성애라는 빛과 어둠의 이중생활을 살아갔다. 1891년 그의 대표적 소설 『도리안그레이의 초상』이 출판되어 대성공을 거두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설을 9번이나 읽었다는 21살의 정열적인 팬 더글라스를 만나 그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이듬해 둘은 연인이 되었다. 일부일처주의를 신봉하지 않던 그들은 다른 청년들과도 어울렸다. 더글라스의 아

버지는 오스카가 남색을 저지르려고 유혹했음을 입증하려고 12명의 청년 명단을 공개해 그를 구속시켜버렸다. 남색을 저질렀다고 체포된 것. 그의 재판기록은 동성애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다.

"뭐라 이름붙일 수 없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기소자의 질문에 오스카는 웅변적으로 말했다. "나이 많은 남자가 그보다 젊은 남자에게 갖는 위대한 사랑이다. 이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고 셰익스피어와 미켈란젤로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완벽할 만큼 순수하며 심원한 사랑이다. 지금은 이렇듯 오해되고 있지만 아름답고 좋은 것이며 가장 고결한 형태의 사랑의 감정이다. 그것은 부자연스런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지성을 가진 연장자와 기쁨과 희망, 생명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존재하는 지적인 것이다. 세상은 그것이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이해하지 않고 조롱하고 단죄한다." 1895년 2월 그는 법정 최고형인 2년간의 중노동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2년 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파리에서 더글라스와 다시 결합하지만 3년 뒤 46살의 나이로 죽었다.

"내 작품에는 재능이 나타나 있지만 내 생활에는 천재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 그. 그의 인생과 작품 모두는 20세기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작중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자아에 대한 관념을 급격하게 바꾸도록 했고 현대적 감수성에 기초를 놓았다. 서양의 문예사는 오스카가 없었다면 제임스 조이스도, 예츠도, 에즈라파운드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비극적 곡절의 삶을 살다간 그 엄청나게 성공한 작가는 스캔달에 의해 영락해 갔지만 마치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고대 그리스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듯 오스카의 재판은 우리 시대를 규정할 정도로 대중들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확실히 이제껏 어떤 사람도 그렇듯 철저한 동성애자로 널리 알려진 적도 없었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성적 취향을 그렇게 완벽하게 드러낸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현대적이다. 사실 오스카를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현대적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제 막 성애를 동성애와 이성애로 구분하기 시작하던 시대에 그는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확연하게 표현하는 혁명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재판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가 살던 시대의 비밀스런 동성애 공동체에 대한 냉소를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그가 재판에서 제기한 자아는 게이의 정체성을 찾는 데 결정적이었다. 오스카의 장엄한 파국 뒤로는 동성애에 대한 공적 담론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정체성을 찾는 과정도 결코 이전과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었다."

동성애 해방운동의 대부—
칼.H. 울리히(1825-1895)와
마그너스 허쉬펠트(1868-1935)
"제3의 성은 아름답다"

일반인에게 그들의 이름은 낯설다. 그러나 랭킹 8위와 4위로 자리매김된 이 두 거두가 동성애 운동에 남긴 발자취는 만만치 않다. 울리히는 아직 비밀스레 소곤거려지는 동성애자들의 자각에 새로운 개념과 논리를 불어넣어 주었다. 허쉬펠트는 그의 이론을 이어받아 최초로 실제적인 운동을 조직함으로써 동성애 해방운동의 걸음마를 떼었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남·여라는 성과는 다른 제3의 성으로서 남자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천상의 사랑이다. 이는 정상적일 뿐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또한 부자연스런 것도 범죄적인 것으로 여길 것도 아니다."

법을 전공한 변호사로서 해박한 지식을 무기로 저술활동을 펼친 울리히는 『남자간의 사랑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고찰』(1864년)이라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병리학적이고 퇴행적 행태'라는 19세기 후반에 힘을 발휘한 논리가 근거하고 있는 이론에 정면으로 맞선 혁명적 발상이었다. 이 '제3의 성'은 지금은 어느정도 별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당대에는 동성애도 이성애처럼 정상적이라는 혁명적 논리를 받쳐주는 개념이었다. 이 논리에 동의한다면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듬해 '동성애자연맹'이라는 조직을 창립한 그는 동성애로 2년간 감옥을 살았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제3의 성으로서 동성애는 범죄로 다스려져서는 안된다는 그의 주장은 동성애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제자리에 서게 하는 장정에 실로 중요한 일보를 내딛는 역할을 했고 이는 허쉬펠트에게서 부활했다. 그는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대부'로 불려왔다.

또다른 동성애 해방운동의 선각자 허쉬펠트. 언어학과 철학, 의학을 전공한 뒤 얼마간 미국과 아프리카를 여행하기도 한 뒤 그는 개업의사로 베를린에 정착했다. 이미 스물셋의 나이로 『사포와 소크라테스』라는 책을 펴낸 그는 '동성애는 인간의 성애의 한 부분이며 범죄로서가 아니라 마땅히 과학으로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선구적인 주장을 펴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울리히의 책에서 강한 자극을 받은 그는 이듬해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최초의 조직인 '과학적 인도주의협회'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남자들간의 동성애를 금지하는(이 법은 여자들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프러시아 형법 175조 폐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일반이 취하는 태도의 계몽,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목표로 정하고 활동을 벌였다.

형법 175조 폐지를 위해 이 조직이 벌인 청원서명운동에는 앨버트 아인슈타인, 레오 톨스토이, 에밀 졸라,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 등 저명인사 6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운동이 고조되었던 1907년에는 175조 찬반토론회에 2천명이 모였다. 이 조직은 그 밖에도 1903년 세계 최초로 동성애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연보를 발간했다. 23년 동안 발행된 이 『연보』는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문화적 연구물들을 실었다.

그 해 카이저 빌헬름 2세 주변의 저명인사들이 게이로 연루된 한 스캔달이 터졌다. 대중들은 광분했고 이어 이제 갓 시작한 동성애운동에 대한 반동이 시작되었다. 1910년 동성애 남자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도 범죄로 규정하는 보다 엄격해진 새 형법이 제정되었다. 그즈음 터진 1차세계대전은 허쉬펠트의 캠패인을 더욱 어렵게 했다. 독일이 패배한 뒤인 1919년 좀더 자유로워진 바이마르공화국의 분위기를 이용해 베를린에 '성 과학연구소'를 설립한 그는 더욱 좋아진 조건 아래서 다시 청원운동을 시작하여 몇가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운동방침은 1921년 '과학적 인도주의협회'가 제기한 호소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이여… 결국 당신에게 정의인 것은 당신 자신의 노력의 결실일 뿐이다. 동성애자의 해방은 그들 자신의 작업일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1922년, 허쉬펠트가 청원운동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것은 주정부에 제출되었지만 날로 더해가는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혼미에 휩싸여 청원서는 그것으로 그쳤다.

1919년 그는 아마 최초의 게이 영화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한 저명한 동성애 바이올리니스트가 공갈협박자에 의해 파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다. 1919년 그 영화의 개봉장에서 허쉬펠트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중의 하나다. 덮어씌워지는 무지와 편견의 정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들 당찮은 불명예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단자, 무신론자, 마술사 등으로 처형했던 역사의 잔학행위에 비견될 수 있는 오판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밖에도 '다른 이들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알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이 영화는 모르는 부분들을 상당히 깨우쳐줄 것이며 머지않아 과학이 오판에 대해 승리하고 정의가 불의에 승리하며 인간적 사랑이 증오와 무지에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쉽게도 오늘날엔 이 영화 필름의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허쉬펠트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 활동의 중점을 인간권리에 두었다. 그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의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1920년 우익선동가들이 회합을 습격했다. 23년 비엔나에서 열린 군중집회에 나치 청년당원들이 불을 질러 여

러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1923년 '성적 개조를 위한 세계연맹'은 13만명의 회원을 확보해 그 절정에 달했다. 독일에서의 분위기는 점차 암울해지고 있었지만 20년대 내내 그는 그치지 않고 강의와 캠페인을 벌였다. 1933년 3월 6일 성 과학연구소 도서관을 필두로 독일의 도서관들은 '비독일적인' 책들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구소 도서관에서 1만여 권의 책이 불태워졌고 허쉬펠트는 보호감호에 놓여졌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프랑스로 건너가서 연구소를 재건하려고 시도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935년 67세가 되던 날 죽었다. 그래서 그는 다행히도 제3제국이 동성애자들에게 자행한 가공할 만한 만행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

허쉬펠트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이야 동성애자를 '제3의 성'으로 간주하는 그의 '과학적' 태도가 구식으로 보일지 몰라도 가혹한 문화적 낙인과 적대감이 팽배한 속에서 동성애자의 시민권을 위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기구화할 줄 아는 능력은 2차대전 뒤 그들 스스로를 부흥시키려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게이바 스톤월의 단골손님들 (1969년 6월28일)"게이권력을 지지한다."

랭킹 5위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역사적 사건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게이바 스톤월사건. 이 게이바에 드나들던 단골손님들은 허쉬펠트 박사에 대해 서조차도 거의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로부터 반세기도 훨씬 지나 그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의 드라마틱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 글 앞머리에서 저자는 대부분이 노동계급이거나 제3세계 민족 혹은 나약한 사내들이나 괄괄한 레즈비언이었던 이들 동성애 남녀들이 모든 동성애자들의 삶에 미친 측량할 수 없는 영향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그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동성애자 해방의 시초로 역사에 기록되어온 그 밤은 1969년 6월 27일 금요일 자정이 채 못된 시각이었다. 맨하탄 6번구역 담당 경찰은 서울의 종로격인 뉴욕 심장부 크리스토퍼 거리에 있는 한 게이바를 수색했다. 게이바들에 대한 그러한 단속은 그 시절에는 일상사처럼 자행되고 있었다. 종종 주류판매면허 없이 운영되기도 하던 게이바들이 문을 닫거나 신문지상에 이름이 실린 손님들의 생활과 직업이 졸지에 파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판국이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지만 게이바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실로 그들이 사회화되기를 원하는 한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

1969년 6월 뉴욕시는 시장선거전의 바람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 무렵 자기 당의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존 린드세이 시장은 '악'에 대해 단호한 정치가라는 이미지를 내세울 방도를 찾고 있었다. 스톤월바는 그 주간에 급습을 받은 세번째 게이바였다. 수색영장을 가진 경찰이 침입해서는 손님들을 검문하고는 한명씩 내보냈다. 그러나 2백명 가량 되는 그들 손님들은 어둠 속에서 서성대면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않았다. 경찰이 바텐더와 문지기와 세명의 여자를 경찰차로 데려가자 군중들은 야유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질질 끌려가던 한 레즈비언은 순찰차로 데려가려던 경찰에 저항했다.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다. 군중들은 돌맹이와 동전, 쓰레기, 병따위를 경찰에게 퍼부어댔다. 경찰이 바 안쪽으로 물러나자 군중은 주차표시대를 꺽어 문을 부수었다. 안에서는 화염이 일었다. 경찰 지원병력은 4명이 부상을 입었고 포위된 경찰을 구하는 데 급급했다. 경찰을 공격하는 거대한 군중이 보도와 골목길로 흩어졌다가는 이내 다시 모여들곤 하면서 폭동은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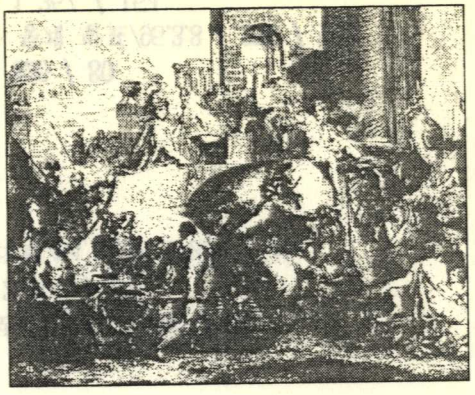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그 소문은 시가지에 쫙 퍼졌다. 스톤월 바의 덧창문에는 "게이권력을 지지한다"는 글이 새겨졌다. 다시 불붙은 폭동은 전날보다 더 격렬했고 참가자도 그 10배로 불어났다. 클럽을 장악한 4백명의 진압경찰과 전투를 벌이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2천명도 넘었다. 역사가 존데밀리오가 썼듯 "역사상 최초의 게이 폭동"이었다. '마타찌니 게이협회'의 소식지는 그것을 "머리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세상을 바꾸었다"고 그렸다. 레즈비언 역사가 릴리안 화더맨은 이 사건의 의의를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 있다. "60년대 태반을 분노하며 지냈던 흑인과 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은 마침내 동성애 대중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분명히 터트리도록 점화했다. 동성애자들의 폭동이란 역사

의 그 이전 어떤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설혹 그것이 어쩌다 더 일찍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1969년에 일어난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띠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이해방운동은 그 시대가 가져다준 이상이었다. 스톤월반란은 그 운동의 부활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의 권력의 표상이 되었다.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이 써온 폭력적 항의라는 극적인 전술을 씀으로써 스톤월사태는 동성애자들 또한 그들만큼 불만을 가질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이 일반적이기조차 했던 이 시기 동안 동성애자들은 그저 권리운동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사태는 변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해방을 위한 절규로 들려지고 있다."

스톤월반란에는 뚜렷한 '지도자들'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세월 억압을 받다가 마침내 그 억압에 분연히 저항한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이뤄낸 것이었다.

스톤월사태가 있은 지 한달도 안되어 '게이해방전선'이 결성되어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것은 제법 역사가 깊은 마타찌니협회가 조심성있고 정치적인 것에 비해 군사적이고 과감한 행동집단이었다. 그 뒤 일년 안에 전국에 12개가 넘는 게이해방그룹이 결성되었다. "혁명이 시작되었다. 동성애자들의 생활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알렉산더대왕 (기원전356-323)
"동성애자가 사내답지 못하다고?"



33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은 알렉산더대왕은 랭킹 14. 11년간의 전쟁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군사적 천재이자 전쟁영웅. 그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정략적인 것이었고 실상은 어렸을 적부터의 동료인 헤파스쳔에게 몰두했었다고 한다. 『플루타크영웅전』이 전해주는 일화등은 그들이 동성애를 나눈 정경을 암시한다. 가령 고대 트로이 땅에 이르르자 알렉산더는 아킬레스 무덤에, 헤파스쳔은 패트로클로스 수령의 무덤에 각각 헌화한다. 이들은 서로 연인지간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일화. 알렉산더를 헤파스쳔으로 착각해 엎드린 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당황한 페르샤 여왕을 일으키며 "걱정마시오. 그대는 실수하지 않았소. 그도 나요"라고 한 점등이 흔적으로 전해진다. 헤파스쳔이 죽자 미친듯 괴로워한 그는 그를 살려내지 못한 의사를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시켰고 그의 장례식은 '역사상 알려진 것 중 가장 장관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그 뒤 페르시아 소년인 시동 바그다스를 평생동안 사랑했다. 주위에서는 "오랑캐를 가까이 한다"며 괴벽으로 치부했지만 그는 인간은 하나라는 관념을 가졌다. 메리 르노라는 동성애작가는 이 소년을 모델로 한 소설 『페르샤 소년』을 지었다.

그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가 이룬 정복은 역사의 여명에 '동서양의 결혼'을 성립시켜 이후 문명의 과정을 변경시켰다. 역사상 가장 잘 인용되어온 동성애자 중의 하나인 알렉산더대왕은 그 존재로서 동성애자들이 자기자신을 이 세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동성애자는 사내답지 못하다는 악의적 비방을 깰 수 있는 결정적 반증으로 거론되었다.

성 어거스틴 354-430
"감미로웠던 동성애, 그러나 죄악"

랭깅 16위는 어거스틴. 그는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한때의 탐닉과 그에 대한 절절한 회개를 썼다.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인과 철학자, 그들과 나이어린 미소년과의 동성애는 공공연한 관습이었다.

즉 그도 한때 동성애에 빠졌다. 어렸을 적부터 친했던 젊은 기독교인과의 관계는 거의 일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나중에 『고백록』에서 그 사랑은 "내가 이제껏 경험한 어떠한 것보다 훨씬 감미로운" 것이었다고 기억할 정도로 뜨거웠다. 그가 죽어버리자 어거스틴은 "나는 나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두 몸속에 있는 하나의 영혼'인 것처럼 느꼈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에게 공포가 되었다. 나는 반쪽인 상태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할 정도로 공허해 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우정이란 현대와 달리 에로틱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어거스틴은 그러한 열정의 성적인 측면에 대해 능렬히 후회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나에게는 감미로웠다. 사랑하는 이의 육체를 즐길 수 있었다면 더욱 감미로웠을 것이다. 나는 우정이라는 샘물을 정욕으로 더럽혔다." 그는 이즈음 모든 형태의 성에 대해 적대적이던 기독교의 한 분파인 마니교로 개종했다. 그가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성애에 대해 혐오했던 것은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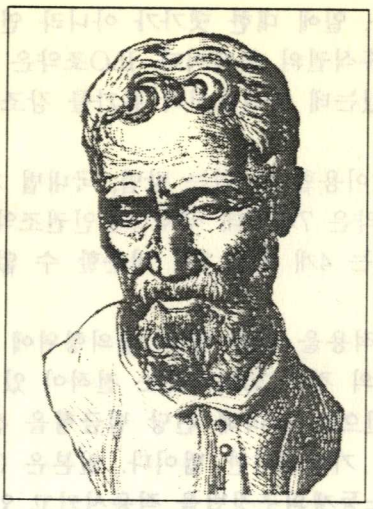
저자는 어거스틴을 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그는 기독교 문명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젊었을 적 생활에 대한 나중의 혐오는 우리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아직도 끼치고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가해진 수세기에 걸친 억압과 박해의 세월은 바울 때문이었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그가 서구문명에 끼친 강력한 영향력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가 그를 이 리스트에 소개하는 이유는 단지 그러한 점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게도 동성애를 혐오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그 사람도 사실은 한때 동성애에 탐닉했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그 억압의 무게를 덜어주고 그가 그토록 엄숙하게 규정했던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만드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1475~1564)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남성의 강건한 육체, 사랑의 변형"

나란히 17번째와 18번째로 소개된 이는 르네상스 시대 미술 최고의 두 거장.

미켈란젤로는 57살에 카발리에리라는 젊은 귀족을 만나 자신의 여생을 그에게 바치고 결국 그의 팔에 안겨 죽는다. 32년간 지속된 우정은 플라토닉한 관계로 보이지만 그에게 바쳐진 수 많은 소네트 시 속에는 동성애적인 의미가 녹아있다. 저자는 "미켈란젤로는 남자를 사랑한 남자였다. 그의 성적 지향은 그의 작품에 중심적 테마



로 그려지고 있다. 남자의 육체는 그를 열광시켰고 심지어 그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은 남자의 육체와 잘 분간이 안되기도 한다. 그는 남자의 육체에 대한 웅혼한 개념화와 형상화를 통해 게이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입혔다.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단적 상상력은 우리를 사로잡는다. 일례로 그의 유명한 조각 〈다비드상〉은 단호하면서도 모호하고 포즈를 취한 듯하면서도 이완되어 있으며 어리지만 힘찬 근육을 형상화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형의 남성적 아름다움을 역사에 등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4살 때 17살 난 모델에 대한 '불경스런 행위'로 기소되었다는 명백한 기록이 있고 세스토, 볼트라피오, 살레노, 그리고 멜지라는 젊은 귀족, 카프로티라는 열살짜리 소년 등 아름답게 치장한 젊은 남자들에게 열중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는 미켈란젤로와 달리 그의 작품 자체로서보다는 프로이드의 해석을 통해서 그 동성애성이 거론되었다. 프로이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최대의 걸작 〈모나리자〉의 미소의 비밀을 동성애를 통해 설명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억압하면서 소년은 자신을 어머니와 대치시키고 자신을 어머니의 위치에 놓는다. 결국 그의 새로운 사랑의 대상의 모델은 자신이 되고 그래서 그는 동성애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소년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여자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도 사실은 보통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때마다 여자들에게서 받은 자극을 서둘러 남성 대상에게 변형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의 비밀이 숨겨져있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석이지만 어쨌든 이 논문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날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프로이드의 해석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남성에 대한 사랑이 여성에 대한 사랑의 변형이었다고 한다면 미켈란젤로를 매료시킨 것은 남성의 강건한 육체 그 자체였다.

저자는 도발적으로 묻는다. 이들 위대한 예술가들의 천재성과 게이였다는 사실이 서로 연관된 것이라면 게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이러한 반론은 만만히 보아 넘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차이코프스키(1840-1893)
"동성애로 고통스런 영혼의 가락"

랭킹 29위. 슈베르트, 헨델 등 동성애 음악가들을 제치고 고전음악가로는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는 동성애로 겪은 영혼의 고통을 위대한 음악 속에 녹여냈다. 마지막 심포니 6번 〈비창〉

의 운율은 그 고통스런 영혼의 가락이다.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의 인습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동성에 끌리는 자신에 대해 괴로워하다가 37살에 제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 또한 원만치 않아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 뒤 누이의 아들인 14살 먹은 조카와 어쩔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일기는 그 섬세한 사랑의 감정을 그리고 있다. 조카가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플라토닉하게 되어갔다. 신경쇠약과 정서적 위기, 과음의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그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작곡했다. 6개의 심포니와 바이올린 협주곡, 세편의 피아노협주곡, 여러 편의 오페라,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끼인형〉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많은 발레곡.

1893년 조카가 22살 때 완성한 그의 마지막 심포니 〈비창〉은 조카 '보브'에게 헌정되었다. 이 걸작은 첫 공연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었고 그 엿새 뒤 그는 죽었다. 그는 자신의 상속자로 유일하게 조카를 지목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조카와의 동성애에 대한 스캔들을 피해 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가 알려지면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며 영원히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시절이었다. 그를 사로잡았던 조카도 1906년 35살로 자살했다.

그의 비극적 생애와 불멸의 음악은 그가 동성애자였다는 전설과 뗄 수 없이 얽혀있다. 오랜 침묵과 비밀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게이의 존재에 대해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망은 그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미셸 푸코(1926~1984) "성이 목욕탕에서 작용하듯 해야한다."

32번째 인물 미셸 푸코. 그는 아마도 AIDS로 죽은 세계 최초의 유명인사일 것이다. 허나 당시만해도 AIDS가 번지던 초기였던지라 그가 자신이 AIDS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1926년 10월 15일 프랑스 뿌아티에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외과의사였고 아들이 자기 직업을 이어받기를 원했다. 청소년기의 푸코는 우울하고 내성적이며 비행을 저지르곤 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엄격한 규율을 가진 카톨릭계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거기서 그의 학문적 재능이 꽃피기 시작해 뛰어난 젊은 사상가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을 전공해 학위를 받았다.

1960년 그의 뛰어난 저작 중의 하나인 『광기와 문명』에서 그는 '광기'나 '정상'이라고 내리는 구분이란 순전히 이성의 시대의 발명품일 뿐이라고 이색적인 주장을 편다. 그 해 푸코는 자기보다 십년 연하의 철학도인 다니엘 드페르를 만난다. 그와의 관계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에게 18년 동안 열정을 느꼈고 때로는 이 열정이 사랑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 후 『지식의 고고학』, 『감시와 처벌: 감옥의 기원』 등을 펴내고 자신의 기념비적인 그러나 미완의 대작인 『성의 역사』에 몰두한다.

1975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는 독특한 체험 — 목욕탕에서 발견한 해방된 게이들의 성에 전율하는 데 이는 그의 사고의 발전에 있어 분수령이었다. "나는 성이 목욕탕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상태로 만난다. 오직 신체만이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이나 과거, 자기 규정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성의 역사』 1권을 통해 푸코는 게이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거기서 그는 성이란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무매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문화적 구조물이라는 이론을 밝혔다. 그는 현대의 동성애 그리고 이성애라는 말은 최근에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8세기 이전에는 동성애자는 없었고 오직 동성애적(혹은 남색적)인 그

리고 이성애적인 행위들만 있었을 뿐이며 18세기와 19세기에 와서야 이런 행위들이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는 "고대 법전에 의하면 남색은 금지된 행위들 중의 하나였으며 위반자는 법적 처리의 대상일 뿐이었다. 남색은 과거에는 일시적인 일탈이었으나 현재에는 하나의 유형이 되었다"고 갈파한다. 그는 동성애라는 개념을 상대화시켜 제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준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 (1887~1946)
"변화할 수 있는 동성애 혐오증"

35위. 『국화와 칼』의 저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루스 베네딕트의 이름을 이 명단에서 발견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녀의 학문적 업적은 그녀가 레즈비언이었다는 사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게다가 그 파트너가 그녀와 마찬가지로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마가레트 미드였다는 점에 이르면 더 그렇다. 허나 이 놀람은 차라리 통속적인 것이다.

교사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루스 베네딕트는 1919년 뉴욕시의 '새 사회조사학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 등록하면서 인생의 전기를 갖는다.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동성애를 겪게 된 것. 그녀는 마가레트 미드라는 선배를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둘은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수행한 연구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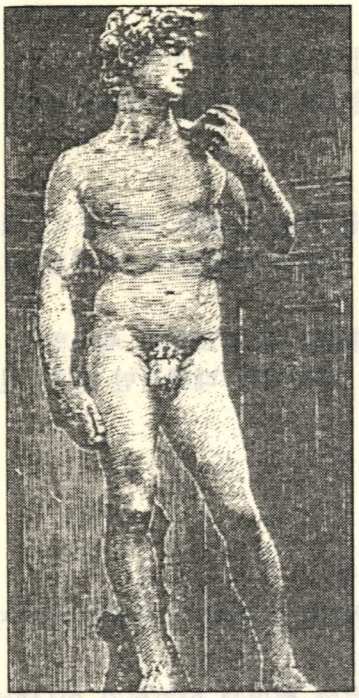
스스로 어려서부터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베네딕트는 부적응자에 대한 연구에 마음이 끌렸다.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 자신들이 혹시 병든 것은 아닌지, 비정상은 아닌지, 사회로부터 버려져야 하는 존재들인 것은 아닌지 고민하던 그들은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던 일탈(deviant)이라는 개념을 뭔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관습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신들의 사랑을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된다고 밝혀내기도 했다.

미드와 베네딕트의 가장 큰 문화인류학적 업적은 "한 사회의 가치가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낸 데 있다. 가령 미드의 남태평양 원시부족 연구나 베네딕트의 아메리카 원주민사회나 뉴기니 등에 사는 다양한 종족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구중심적 문화관을 상대화시킨 것. 이로써 베네딕트는 동성애를 범죄나 질병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서구사회의 일반적 편견을 바로잡을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녀는 「인류학과 비정상」이라는 논문에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동성애를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동성애를 하는 이들에게 명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고 밝혀낸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나 아메리카 원주민사회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업적은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실하고 처절하게 지적 고민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사회에 완고한 동성애 혐오증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다윗과 요나단 (1000 B.C.)
"베스트셀러에 실린 열정적 사랑"

40위는 성경 속의 인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다. 아마도 현대 서구문명이 동성애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까닭의 많은 부분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 예는 소돔과 고모라. 기독교도에게 이 두 도시는 종말론적 심판이 필요한 타락의 상징이다. 여호와 하느님은 이 도시들이 너무나 타락했으므로 불로 심판을 내린다. 그때 타락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이 도시들에서 남색이 공공연하다는 점. 심지어 영어에서 남색을 표현하는 단어인 소도미티



(sodomity)는 이 도시의 이름을 좇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저자인 바울은 동성애를 금하고 저주한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경 속에서도 동성애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유일한 경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다.)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약간 헷갈린다. 사무엘 상 16장에서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자 이를 달래기 위해 악기를 잘 타는 다윗을 불러온다. 다윗의 연주로 악령을 물리치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 곁에 두고 자기 무기담당자로 삼는다. 그런데 17장에서는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앞두고서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칭찬을 받는 광경을 보고 요나단의 영혼은 다윗의 영혼에 굳게 결합하여 그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옷은 물론 속옷까지 벗어주고 자기 칼이나 활 등 무기도 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한다.

이후 사울이 다윗의 군사적 성공을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이를 다윗에게 알려 피신하게 하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책망한다. "너 사악하고 반항하는 여인의 아들이여. 네가 이세의 아들을 네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로 삼았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불호령한다.

궁전을 빠져나온 요나단은 다윗을 발견한다. 다윗은 그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세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할 때까지 서로 울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어떤 번역에서는 '회복하다'라는 말 대신 '지나치게(exceeded)'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를 '사정하다'로 해석해 이들의 관계를 성적으로 풀이한다.

그 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는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요나단을 못잊어 하며 그들의 사랑에 대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열정이었다고 표현한다.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남성들간의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러스의 경우나 바빌로니아의 서사시 길가메쉬에 등장하는 길가메쉬와 엔키두 사이의 관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문명권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유사 이래 최대의 베스트셀러라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1884-1962) "지구에 사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활동력을"

랭킹 44위. 뉴딜 정책을 실현한 대통령 루즈벨트의 부인. 미국 역사상 최고의 퍼스트레이디로 꼽힐 정도로 의미있는 일을 많이 해낸 그녀는 알고보면 남편의 후광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세계를 이루어냈다. 전통적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몰라보게 변화시킨 그녀는 6명의 자녀를 낳고도 여성의 권리는 물론 세계평화,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발벗고 뛰었다. 루즈벨트 대통

령의 사후에도 UN대사, UN인원위원회 회장 등 국제적 활동무대에서 활약했고 민주당내 자유파진영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 실질적으로 별거상태였는데 2차대전 중에 두 쌍의 레즈비언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 몇년 뒤에는 레즈비언 저널리스트 로레나 힉코크와 열렬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들이 나눈 편지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 훨씬 전인 20년대 이래로 그녀와 절친한 친구들의 상당수가 레즈비언이었다. 엘리노어 자신은 그녀들과의 사생활을 비밀로 지켰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수세기 동안 자신들이 사랑을 숨기는 것은 자신들에게 퍼부어질 사회적 비방과 잔혹한 처사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자구책이 아닐 수 없었다.

"여성권의 챔피언, 현대의 권능있는 여성의 심볼로서의 그녀는 지구 위에 사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활동력이라는 드문 유산을 남겼다. 짓밟힌 나라와 인종에 대한 연대와 국제적 활동이라는 공적 기능의 그늘에서 그녀는 정열적으로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사생활을 산 사랑의 표상이 되었다."

니진스키(1890-1950)와 누레예프(1938-1993)
"조역에서 발레의 우상으로"

여자 무용수를 떠받쳐주는 조역. 니진스키 이전의 남성 무용수는 그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까지 살았던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남자 무용수로 꼽히는 니진스키가 남성 무용의 독보적 영역을 열어젖히기 전까지는. 이 신화는 러시

아 발레단을 창립한 예술가 디아길레프와의 공동성과였다. 이 둘이 랭킹 46위. 그리고 누레예프가 89위로 놓여 있다.

아방가르드 저널인 『예술세계』를 창간해 영향력있는 예술의 후원자가 된 디아길레프는 1905년 러시아 예술전람회를 조직해 이미 명성을 굳혔다. 이듬해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를 놓고자 한 그는 파리에 러시아 발레단을 차렸다. 여기는 처음부터 예술적 실험의 온실로서 드뷔시, 모리스 라벨, 스트라빈스키 등 음악가뿐 아니라 당대에 내노라하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19살의 탁월한 무용수 니진스키도 여기에 모습을 내밀었다.

유명한 무용수를 아버지 어머니로 둔 니진스키는 춤 속에서 자라났다. 9살 때 무용학교에 들어간 그는 두각을 드러내 교사가 더이상 가리킬 것이 없는 학생이 되었다. 22살 그는 춤만 춘 것이 아니라 안무도 했다. 현대발레의 이정표가 된 그의 작품 〈목신의 오후〉, 〈봄의 요정〉 등은 초연에서 관중들로부터 극장을 뒤흔들 정도로 열광적 찬사를 받았다.

젊은 수퍼스타 니진스키와 흥행주 디아길레프. 두 사람의 동성애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관계는 1년이 채 못가 환멸을 남긴 채 파경에 이르렀다. 미친 듯 정열적인 디아길레프는 이 젊고 수줍은 무용수를 사유물처럼 다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이 연인으로 지내던 짧은 동안에 빚어낸 눈부신 혁신은 20세기 후반 발레의 우상으로 떠오른 누레예프의 모태가 되었다.

누레예프는 11살부터 발레를 시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 〈지젤〉 등의 공연으로 찬탄을 한 몸에 받는 무용수가 되었다. 러시아 관료주의와 갈등을 빚은 자유분방한 그는 23살 돌연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한다. 서방에서도 세계적 발레리나와의 열연으로 록스타와 같은 열광적 인기를 누린다.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기막히게 아름다운 남자 누레예프는 치솟는 동작의 높이와 가벼움, 속도, 마치 빛을 뿜어내는 듯한 열린 가슴으로 유명했다. 70년대 올레그 케렌스키는 "그의 선풍적인 성공은 그가 내뿜은 강렬한 에로틱한 힘, 동물적 마력과 관능성에 기인한다. 중년여성에게는 모성적 본능을, 젊은 여성에게는 그와 한쌍이 되고픈 열망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욕구에 호소한다." 실제로 그가 공공연하게 악명 높은 게이바에 정기적으로 드나든다는 이야기들도 그의 인기를 떠받쳐줄 정도였다. 20세기 무용에 고전적 전통에 바탕을 둔 낭만적 감수성을 도입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창출했다고 찬탄받던 그는 93년 55세의 나이로 숨졌다. AIDS에 따르는 심장복합증이었다.

그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발레와 게이라는 양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20세기 발레무대는 디아길레프와 니진스키를 필두로 누레예프에 이르기까지 게이들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것이다.

랭보(1854-1891)와 베를레느(1844-1896)
"자기파괴적 사랑에서 나온 시"

랭킹 51위는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시의 거목 랭보와 베르레느. 열살 차이의 이 두 시인은 그들의 시만큼이나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명암 짙었던 이 둘의 동성애관계는 19세기에는 오스카 와일드와 더글라스의 관계를 빼고는 가장 공공연했다. 이 둘의 사랑이 프랑스 문학에 미친 영향은 "이 비범했던 두 시인 뒤로는 동성애를 말하지 않고는 프랑스 시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평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어렸을 적부터 글짓는 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랭보는 "시인은 자신을 상투적이도록 붙잡아매는 모든 구속을 파괴해야 한다"거나 "마치 범죄를 저지르듯 모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미학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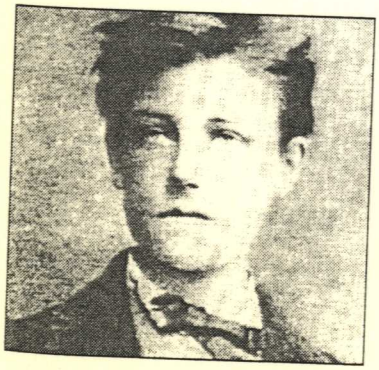
22살에 첫 시집을 내 말라르메와 더불어 상징주의시의 큰 봉우리를 차지한 베를레느는 16세 소녀와 연애에 빠져 결혼까지 했었다. 이 시절에 쓴 그의 시는 그녀를 자신이 '죄짓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구원의 상으로 그리고 있다.

베를레느와 랭보가 만나자만자 의기투합. 연인이 되고나서 이들의 사랑은 소용돌이 그 자체였다. 그들은 한도 끝도 없이 다투고 헤어지고 화해하기를 거듭했다. 그 절정은 극적인 파경이었다. 랭보에게 총을 겨눠 부상을 입힌 베를레느는 그에게 총을 건네주고 자신을 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랭보. 병원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다시 싸움이 붙어 다시 총을 겨누는 사태가 생겨 랭보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그 결과 베를레느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했다. 석방 뒤의 마지막 만남 역시 격렬한 싸움으로 끝났다.

이 격정적 사랑의 시기에 랭보는 빼어난 시 두편, 〈지옥에서 보낸 한철〉과 초월적 산문시 〈일루미네에션〉을 지었다. 이 둘의 파란 많은 관계에 대해 한스 메이어는 "베를레느는 왜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숙한 처녀처럼 지옥의 배우자의 어리석은 연인으로 남아있었다"고 평했다.

그 뒤 랭보는 이디오피아에서 죽을 때까지 중동과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때로는 무기밀수업자 노릇도 하면서 시골여자와 가난하고 미천하게 살았다. 그가 유럽에 없는 동안 그는 한없이 유명해졌다. 랭보를 찾아내지 못한 베를레느는 그의 작품들을 『후기 랭보』라는 책으로 출판해냈고 그를 기리는 훌륭한 비평을 써냈고 『저주받은 시인들』이라는 책에서 그에 대한 글을 썼다. 분명 자신이 프랑스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랭보는 더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더이상 시를 쓰지 않고 여행을 했고 37살 암으로 죽었다. 랭보와 결별한 베를레느는 로마카톨릭으로 개종한 뒤 부인과 안정된 생활을 하려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음주와 양성적 방탕에 빠졌다. 그는 랭보가 죽은 지 5년 뒤 죽었다.

이 두 위대한 시인의 열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파괴적 사랑은 프랑스어로 씌여진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있는 시를 낳았다.



프로렌스 나이팅게일(1820-1910)
'동성에게서만 느낀 자유, 열정"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 프로렌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라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전적인 교육을 받았고 특히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회에서 적절하

다고 기대되는 여인상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1837년 나이팅게일은 사회에 입문하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녀의 삶을 봉사에 헌신하라는. 어떠한 봉사를 의미하는 건지는 9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된다. 그사이 그녀는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18개월간 여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녀의 시야는 가정을 벗어나 넓어진다. 파리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한 살롱에 가서 대단한 감동을 받는다. 거기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부인이나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들과 대등한 사람이나 친구들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었다.

다시 영국으로, 가정의 숨막힘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병에 걸린다. 그녀는 고모 마이 스미쓰의 간호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그리고 둘은 '열정적인 친구'가 된다. 마이는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을 숭배하며 그녀를 자신의 남편이나 아이들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그녀의 보호자, 이해자, 상담자가 되었다.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둘은 '연인 같았다'.

1840년대 나이팅게일의 다른 엄청난 사랑은 마리엔느 니콜슨이라는 사촌이었다. 나이팅게일은 이후 그녀에 대해서 "내 생애에 열정을 갖고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그건 바로 그녀였다"라고 썼다. 마리엔느는 반면에 오직 그녀의 오빠 헨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헨리는 나이팅게일을 사랑했다. 그때의 나이팅게일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활이 무척이나 불만족스러웠고 그녀가 마리엔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열정은 끊임없는 고통이 되었다.

6년 후 헨리가 마침내 청혼을 했고, 나이팅게일은 마리엔느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와 결혼할 것을 생각해봤으나 결국 거절했다. 마리엔느는 그 오랜 시간 오빠의 구애에 대한 나이팅게일의 배반에 분노하고서 갑자기 나이팅게일과 절교했다. 이것은 나이팅게일에겐 치명적인 충격이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 수녀가 될 생각까지 하게 된다.

여자의 경력이라는 것을 들어볼 수 없던 시기에 절박하게 그녀는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고자 했고, 결국 가족을 설득하여 간호사의 길을 가게 된다. 이후 크림전쟁에 참여했고, 계속해서 보건사업에 헌신한다.

1856년 심각하게 쇠약해져 자리에 눕게 되었고 그때 다시 고모 마이가 남편과 가족을 떠나 나이팅게일의 침상 옆으로 온다. 침대에 누어 있는 동안 나이팅게일은 가족으로부터, 어머니와 언니가 밀어넣으려고 한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여자로서 그녀는 다른 여자와 감정의 세계를 공유했고, 어떠한 결혼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창설하고, 가정 밖에서의 경력을 여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근대적인 여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만든 그녀는 그래서 이 책의 54위를 차지한다.

록 허드슨 (1925-1985)
"남자다운 게이"

63위. 헐리우드 영화 〈자이안트〉

에서 보듯 한마디로 서글서글하니 잘생긴 미남 록허드슨. 85년 그가 AIDS환자로 수척한 몰골을 드러냈을 때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50년대부터 스타덤에 올라 말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영화출연을 하면서 공개된 삶을 산 그. 허나 그의 동성애는 용케 극성맞은 대중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50년대 중반 그가 동성애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보호자는 그를 비서와 결혼시켰다. 결혼은 3년도 못돼 깨졌고 그는 남성들과의 비밀스런 관계를 계속했

다. 85년 그가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공식적 보도와 달리 그가 파리에서 AIDS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이미 수천명이 이 정체불명의 병으로 죽어갔지만 허드슨은 집단의식 속에 이 병이 전염병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하도록 했다. 충격은 두가지였다. 어떤 이도 에이즈에 면역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첫째였다. 또 하나는 그토록 남자다운 허드슨이 동성애자라면 어느 누가 게이가 아닐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얽혀 있었다. 신문들은 그의 말쑥한 초기 모습과 병에 찌들어 형편없어진 그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 세계는 한편으로 에이즈로 위협받는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 비상한 관심을 쏟았다. 동시에 대중들의 경각심도 높아졌고 전염병에 대한 정부지출도 늘어났다.

그가 쓰러진 뒤 2달이 못되어 에이즈퇴치기금 발기인들은 5백만불을 모았다. 그 한달전에 허드슨 자신이 에이즈라는 것을 고백한 데 힘입은 것이었다.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허드슨은 전보를 띄웠다. "나는 아파서 행복하지 않다. 에이즈에 걸려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내가 알 수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라면 나의 불행도 긍정적 가치를 지녔을 것이다." 그 한 달 뒤 그는 숨졌다.

허드슨의 운명은 아이러니로 가득차 있다.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성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그의 영향력은 엄밀하게 그가 병을 통해 자기의 성을 고백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마르티나 나바르틸로바(1956-) "단거리 경주 이후의 꿋꿋함"

랭킹 72는 운동선수로서는 유일한 나바르틸로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천재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이미 13살 때부터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한 세기의 테니스 선수. 22살 때 윔블던 경기에서 4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오던 크리스 에버트를 물리치고 테니스계의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녀는 윔블던 단식경기에서 9번이나 우승하고 전 미국 오픈경기에서 4번을 우승하는 등 빛나는 전과를 기록했다.

이미 18살 때 "나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곳을 여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망명한다"는 다소 뜻밖의 선언을 남기며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그녀의 선수생활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또한 동성애를 실현할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사랑에 빠져 6개월을 지냈고 그 뒤로는 동성의 매니저 산드라 하이니와 3년간 동거하기도 했다. 그동안에 그녀는 테니스계의 정상에 올랐다.

1994년 6월 미국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축제 '스톤 월' 축제에 참석한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상징하는 핑크빛 역삼각형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다.

78년 윔블던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그해 그녀는 소설가 리타 브라운(랭킹74위)과 열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뒤 브라운이 "마라톤 같은 관계가 있고 단거리경주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단거리경주와 같았다"고 회고하듯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바르틸로바는 85년

에 펴낸 자서전에서 "브라운은 처음부터 내가 훌륭한 테니스선수인가 아닌가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거의 정반대였다. 그녀는 스포츠는 정신을 고양시키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버릴 뿐이라는 식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한 긴장이 그들 관계를 찢어놓았다. 빌리진 킹이 마릴린 바네트에게 고소당하고 메이저 테니스 스폰서인 아본이 동성애자들과 관련되길 원치 않는다며 후원을 철회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동성애가 영주권 획득에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했지만 81년 별탈없이 영주권을 얻었다. 그즈음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자신과 브라운과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그 뒤로 언론자유사회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사생활이 잡지의 기사거리로 실리곤 해 유명세를 치르면서도 그녀는 이러한 폭거에 품위있게 맞서면서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소신있는 레즈비언 스포츠명사로서 기록된다. 그녀와 브라운과의 관계는 근래에 가장 널리 얘기되는 동성애 연애사건이었다. "고도로 성공한 매력적인 이 두 짝꿍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능동적 이미지를 가장 널리 퍼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 더 나아가 나바라틸로바의 화려한 테니스경력은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선수를 꿈꾸는 수많은 여성들의 모델이 되었다."

마돈나(1958년-)
"생활에 친숙한 동성애"

99위. 고교 때부터 춤을 공부하다가 드럼을 하는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 몇몇 클럽에서 드럼을 치거나 리드 보컬리스트로 일했다. 음반을 내며 꾸준히 길을 닦아 상업적 성공을 해가던 그녀는 87년부터 마릴린 몬로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89년 독집음반과 비디오로 나온 〈기도자처럼〉에서 그녀는 흑인 성직자를 유혹하는 내용을 담아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낙인이 찍혔다. 펩시콜라는 마돈나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음반은 국제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듬해 그녀는 영화 〈딕 트레이시〉에서 맡은 역할을 위해 야심적인 세계공연을 떠난다. 순회공연을 하는 동안 그녀는 터런토에서 무대 위에서 수음하는 자태를 취했다고 체포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내 사랑은 정당하다〉는 비디오는 성문란으로 MTV에서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가는 최대로 올라 92년 유례없이 수백만불의 계약을 맺는다. 그녀의 무용단은 대부분이 동성애 남자들로 이뤄져 있다.

그녀는 동성애 공동체에 대한 굽힘없는 지지와 에이즈를 위한 사업에의 참여로 90년 동성애 조직이 수여하는 상을 받기도 했다.

저자는 "마돈나를 여기에 수록하는 것은 그녀가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현상을 대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분명 이 책에서 그녀 앞에 다뤄진 수많은 개인들의 영향력 있는 기여가 있었기에 그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헤아린다. 한 비평가는 "마돈나는 이성애의 언어로 입혀진 것이지만 레즈비언을 권한다"고 파헤친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양성애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히는 이성애자 마돈나는 어떤 의미로는 공공연하게 게이나 레즈비언 스타일을 취할 수 있는 문화적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 쓰임새에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마돈나 같은 대중적 인물이 이제 그렇게 오랜동안 저주받은 것으로 남아 있었던 동성애라는 스타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마돈나만큼 게이와 동성애의 이미지를 생활에 친숙한 것으로, 또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파한 사람도 없었다. 전통적인 성역할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함으로써 마돈나는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우호적인 더욱 진보적이고 관대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